

불교혼례식으로 평생도반 맺으세요

불교전통혼례식 이렇게

‘소중한 인연’ 평생간직 다짐 현대감각 살린 혼례방식 인기

#1 5월 11일 서울 인사동 썬다에서 열린 ‘화혼식-성스러운 인연, 연꽃같은 삶’ 시연회.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가 주최한 시연회에는 지나가던 시민 500여명이 몰려들어 불교혼례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공개 한복으로 단장한 신랑신부가 시자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자 시민들은 탄성을 질렀다. 식장 정면에는 십바라밀을 상징하는 당초와 불전이고 초례상에는 연꽃과 초가 올라와 있어 일반 전통혼례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신랑신부가 맞절을 하고 삼귀의가 있는 뒤 고복식과 현화식이 이어졌다. 불교혼례식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인 ‘현화식’은 부처님 분신담에 나오는 선녀 선인과 구리 선녀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녀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던 당시, 연등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기 위해 구리 선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 대신 함께 연꽃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본받아 신랑이 5송이, 신부가 2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현화다.

이 때문에 불교혼례식을 ‘현화식’이라고도 부른다. 불교혼례식의 또다른 특징인 ‘고복식’은 부처님께 부부됨을 고하는 순서이다. 현화식과 고복식 후에 이어지는 근배례에서도, 술을 마시는 일반 전통혼례와는 달리 신랑신부는 차를 나눠 마셔 눈길을 끌었다.

주례 대신 증명법사 역할을 맡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진행된 이날의 시연회는 두 사람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끝맺었다. 시연회를 주최했던 (사)우리는선우의 임동숙씨는 “기형적으로 변질된 결혼문화 대신 우리 고유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 감수성에 어울리는 대안혼례방식이 바로 화혼식”이라며 “전통혼례식 안에서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시도로 불교혼례문화의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2 지난 5월 7일 오후 1시 서울 봉은사에서는 시연이 아닌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의 주례로 현재 법무부 한국경쟁보호공단 불교협회 회장으로서 있는 윤용병(52세)과 김애연(44세)씨가 불교혼례식을 올린 것. ‘예전부터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식으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윤씨의 절친인 김씨는 “국적별명의 예식장에서 형식적으로



불교전통혼례식은 꽃을 부처님전에 공양하기 때문에 ‘현화식’으로도 불린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열린 화혼식 시연회.

현화·고복식은 빠질수 없어 근배례, 술대신 차 나눠 마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부모, 불연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더욱 뜻 깊지 않을까’라는 윤씨의 평소 생각이 현실로 된 순간이다. 풍물패의 흥겨운 ‘길놀이’ 가락이 봉은사 앞마당을 한판 감돌고, 사모관대를 한 신랑과 활옷으로 곱게 단장한 신부가 들어섰다. 서로 맞절을 한 뒤 양측 가족이 초예 불을 불리고 증명법사로 모신 원혜스님의 집전 아래 삼귀의를 올리고 고복문을 읽은 뒤 신랑신부가 부처님 전

에 꽃을 바치는 현화식이 이어졌다. 나머지 순서는 ‘(사)우리는 선우’의 시연회와 같이 진행됐다.

불교혼례식을 올리고 싶은 불자들은 재적사찰에 먼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 구룡사, 서울 능인선원, 일산 여래사, 광주 향림사, 해남 대흥사 등 많은 사찰들이 불자들의 결혼식을 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도 여법한 불교혼례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 구룡사, 능인선원 등은 결혼회관이 따로 마련돼 있어, 사찰 법회가 있는 일요일에도 장소격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6)

‘조장’ 풍습은 해부학 발전에 큰 영향

티베트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이 일찍부터 인체의 구조에 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티베트의 ‘조장(鳥葬)’ 풍습 덕택이다. 티베트인들은 히말라야 고원의 혹독한 기후와 험준한 지세 때문에 시신을 땅에 매장할 여건이 못 되었다. 고산지대의 바위나 돌밭에 시신을 매장할 땅이 어디 있었으며 설령 있다면 치더라도 풍공 언 동토에 시신이 어디 썩거나 할 수 있었겠는가.

티베트의학에서는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제각기 일정량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남녀 모두 뇌는 두 움큼의 분량이고 근육은 남자가 500주먹 여자는 520주먹의 분량이라고 한다. 여자의 근육이 더 많은 것은 젖가슴과 엉덩이살 때문이다. 여자의 혈액량은 육안으로 보이는 순환 혈액뿐만 아니라 생식기능 관련 혈액도 포함한 것이다. 생식기능 관련 혈액도 남자의 정액과 같이 두 움큼의 분량이다. 남자나 여자 똑같이 정상 순환혈액은 14움큼 분량이다.

시신 해체하며 장기·인체구조 등 지식 축적 일곱가지 체구성 물질 소화·대사 통해 조성

열거된 풍속으로 오도하거나 곡해하는데 전만 한 말씀이다. 그처럼 종교적으로 성스럽고 과학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세속적으로 비장한 풍습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세상 연을 다해 한갓 고깃덩이나 다름없는 이 몸뚱이를 대궐 같은 호화 분묘에 모셔 한풀이하듯 유제라도 부려야 문화 민족의 미풍양속이란 말인가.

우리의 장례 문화에도 일대 의식의 전환이 일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이지만 최근 소개된 ‘수목장(樹木葬)’이 우리 자연환경과 민족정서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 매장 풍속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티베트인들은 조장의 오랜 풍속에 따라 망자의 시신을 일일이 해체하며 자연스럽게 인체의 구조나 장기 상태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임상 사례를 남기는 셈이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시신 기증자가 없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한 번 못해보고 졸업해야 할 지경에 이른 오늘의 우리 의학교육의 참담한 현실이 자꾸만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의 정수 성분에서 근조직이, 근조직의 정수 성분에서 지방이, 지방의 정수 성분에서 뼈가, 뼈의 정수 성분에서 골수가, 마지막으로 골수의 정수 성분으로부터 정액 또는 생식액이 각각 만들어진다.

일곱 가지 체구성 물질의 생성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소장에서 흡수된 필수 영양소는 정수 성분과 분수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정수 성분은 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혈액을 만들게 되고 분수 성분은 점액으로 변한다. 혈액은 정수 성분으로부터는 근조직이, 분수 성분으로부터는 담낭의 쓸개즙이 만들어진다. 근조직은 정수 성분에서 지방조직이, 분수 성분에서 근육과 지방 같은 이물질로 구성되어 나오며 분비물이 만들어진다. 지방조직의 정수 성분으로부터는 뼈가, 분수 성분으로부터는 뼈와 피지가 만들어진다. 뼈는 정수 성분에서 골수가, 분수 성분에서 락트산·치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골수로부터는 정수 성분에서 정자나 난자의 생식액이, 분수 성분에서 피부나 얼굴을 매끄럽게 해주는 기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아주대학교·한국티베트의학원장



시자들이 꽃과 청정수를 뿌리던 신랑·신부가 그 뒤를 따라 입장한다.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신랑과 신부가 맞배하고 불전을 향해 절한다.



신랑은 5송이, 신부는 2송이의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

불교 화혼식 순서

1. 개식 : 종을 5번 친 후, 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2. 등공양 : 양측 아버지는 불단에 놓여있는 오방색 초에 불을 붙인다. 양측 어머니는 초례상에 놓여있는 초에 불을 붙인다.
3. 신랑·신부 입장 : 신부 친구가 꽃을, 신랑 친구가 대나무나 솔가지로 뿔을

4. 삼귀의례 : 일동 일어나 부처님 전에 삼귀의를 올린다.
5. 고복식 : 증명 법사나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 대표해 부처님께 화혼식을 고한다.
6. 현화식 : 다섯 송이는 신랑이, 두 송이는 신부가 부처님께 현화한다.
7. 교배례 : 신랑은 남쪽 대야물에 손

8. 근배례 : 신랑신부는 초례상 좌우에 마련된 다기에 차를 따라 시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에게 한다(獻茶)한다.
9. 증명법사의 법문 : 증명법사는 법문 시작 전 불단에 향을 피우고 법문 뒤에는 경전, 염주 등 신행생활에 필요한 불구를 선물한다.
10. 신랑신부의 발원문 낭독
11. 인사 : 신랑신부는 부처님과 증명법사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양가 부모님과 하객께 큰 절을 올린다.
12. 사후서원
13. 폐식
14. 탑들이 : 퇴장 후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이 초례상을 중심으로 탑들을 만든다.

자료제공=우리는 선우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 한 해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비 교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아리에 넣고 원거 9가마를 달은 뒤 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백 8-9이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자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삭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기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다슬기를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폐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을 이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위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연 (팔보효소)

영험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의 현상으로 말뚝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가	빙의 현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지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티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애원사** 라고 치세요

해원사 조하루, 18일 지정재일 신주점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포공시)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